



안내 : (02)2000-2114 제18545호 11판

mk.co.kr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정부, 탄소 목표 무리수 “10년뒤 최대 60% 감축”

기후부 2035 NDC 발표

50~60%, 53~60% 2개案 압축
48% 요구한 산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로 정했다. 산업계에서 ‘한계’라고 주장해온 48%에 비해 1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관련기사 A5면

달성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이 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NDC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며, 이번에는 2035년까지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운 것이다.

기후부는 2035 NDC 상한을 60%로, 하한을 50% 또는 53%로 정했다. 하한을 얼마나 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30년까지 목표가 40%로 단일한 수치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50~60%, 53~60%

등 ‘범위’로 결정된 셈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기후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나온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였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과학적으로 오래 검토된 안(48%)이 산업계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약한 방안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35 NDC에 맞춰 (내년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만 발전사업 허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력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선 기자

문화유산과 마천루 ‘공존’ 길 열렸다

뉴스&분석 大法 “서울 종묘주변 개발규제 완화 적법”

‘보존’에 간헐던 서울 속해 풀려…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
전문가 “도쿄·런던은 이미 문화재 주변 초고층 건물 빼곡”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정한 개발규제 조례를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삭제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A3면

6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조례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반경 100m 이내) 바깥쪽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19조 5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해당 조항이 민간의 재산권과 개발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면서 세운4구역 등 도심 문화유산 인근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 계획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반대하면서 종묘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가장 가까운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높이 규제와

유산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 일류 도시는 벌써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도쿄는 황궁 앞에 20여 년 만에 30개에 달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세워 ‘천지개벽’을 이뤄냈다. 런던도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런던타워 주변에 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다. 역사적 유산과 초고층 복합 빌딩들이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이는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영신·박홍주·한창호 기자

울산火電 구조물 와르르…9명 매몰



6일 오후 2시 7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60대·40대 남성 2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인원을 수색 중이다. 구조된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45년전 시설 해체작업중 참변 구조된 2명 중상…7명 수색중

준공한 지 45년 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동 중단된 발전 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9명이 매몰됐다. 관련기사 A25면

6일 오후 2시께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이 건

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0대와 40대 남성 등 2명은 구조됐으나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나머지 7명의 구조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18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 오후 3시 1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동돼 부산·대구·경북·경남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도 투입됐다. 울산 서대현 기자

입됐다. 이번 사고는 1980년에 준공해 2022년 가동을 멈춘 발전소 해체 작업 중에 발생했다. 발전소는 71m로 12층 높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용 회장, 켈레니우스 회장

삼성·벤츠 수장 13일 서울 회동

배터리·반도체 공급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13~14일 방한하는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나 배터리·반도체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켈레니우스 회장과 13일 서울에서 회동하는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의 차량용 배터리를 벤츠 전기차에 탑재하려는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벤츠는 지금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제품만 써왔다.

켈레니우스 회장은 방한 기간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도 만나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LG전자, LG이노텍 등 LG그룹 계열사 임원들과 미팅도 예정돼 있다. A13면에 계속

이덕주·김정현 기자

엔비디아 해부 ㉞…젠슨 황의 13년전 베팅 A4면

인천공항 자회사 ‘4조 2교대’편 인건비 年 1300억원 부담 가중

노조 요구에 경쟁력 하락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4조 2교대’ 근무를 사측에 요구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A25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4조 2교대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4조 2교대는 4개 조가 번갈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다.

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 근무 방식을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꿀 경우 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 1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자회사에 7650억원의 위탁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1300억원을 더하면 공사가 부담해야 할 위탁용역비는 연간 약 9000억원이 된다. 이는 공사 전체 매출액(작년 2조5481억원)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노후화된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과 확장, 첨단기술 도입 등이 지연돼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 지흥구 기자

Money&riches B1~8면
2025 녹색경영대상 C1~4면

2025 미래경제포럼
FUTURE ECONOMIC FORUM 2025

아프리카의 재발견,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5. 11. 14.(금) 13:40~18:00 | 롯데호텔서울
FRIDAY, NOVEMBER 14, 2025 | LOTTE HOTEL SEOUL

주최
한아프리카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후원
산업통상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연합뉴스TV
연합뉴스포털

2025 미래경제포럼

아프리카의 재발견,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개요	주제	아프리카의 재발견,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13:40~18:00
	장소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주최	연합뉴스, 한아프리카재단
	후원	산업통상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연합뉴스TV, 연합뉴스포털

프로 그램	13:40~14:00	사전 행사(리셉션)
	14:00~14:50	개회식
	14:50~15:00	브레이크 타임
	15:00~15:50	기조연설
	15:50~17:00	세션-1 부상하는 글로벌 사무소, 중심에 선 아프리카
	17:00~17:10	브레이크 타임
	17:10~18:00	세션-2 K-비즈니스, 아프리카를 만나다
	18:00~	세션-3 미래를 잇는 다리, 한-아프리카 경제 동행
		폐회 및 환송 인사

사전
등록

<http://www.yonhapnews-forum.co.kr/page/registration02.php>